

여수·순천·광양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광주는 제외

해제지역 거래 활성화 기대 속 금리부담 관망세도 광주는 해제 요구에도 지정 요건 못미쳐 조정지역 유지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가 1년 6개월여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반면, 광주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수·순천·광양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규제가 완화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효력은 7월5일부터다.

이번 조정안에서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여수와 순천, 광양을 비롯해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등 총 11곳이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여수·순천·광양지역은 지난해까지 부동산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올해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

다.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6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주간 매매상승률이 여수는 -0.15%, 순천은 -0.10%, 광양 -0.13%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지난 4월 기준 전년 대비 -28%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세금과 대출, 청약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됨에 따라 침체됐던 아파트 매매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오르고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집값 반등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같은 시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광주시는 이날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에 더해, 광주지역 소비자물가가 크게 올라 집값 상승률이 물가보다 1.3배 높아야 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앞서 광주시와 해당 자치구는 조정대상지역 유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수·순천·광양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년6개월여 만으로, 같은 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광주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여수 웅천지구 전경.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지 요건에 미달되는 일부라도 해제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용(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

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

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지역특화 국제이벤트' 선정

문체부 공모 지역관광 활성화 부문 2년 연속 쾌거

전남도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외국인 관광객 체험여행이 '2022 지역특화 국제이벤트 공모사업' 지역관광 활성화 부문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했다.

지역특화 국제이벤트 공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외국인 50명 이상 참가 국제이벤트를 대상으로 관광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3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6000만원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홍보 마케팅을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식도락 여행지인 전남에서 열리는 제28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해양관광 휴양도시인 여수와 순천의 해양·레저·생태·음식 4가지 대표 특화자원을 접목, 외국인 맞춤형

이벤트 프로그램을 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의 매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이번 국제이벤트 사업은 남도음식의 세계화 및 브랜드화의 큰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8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7일부터 3일간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저소득위기가구 지원 긴급복지 확대

이달부터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광주시는 "위기상황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인상하는 생계지원금 단가(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행 기준중위 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1인 가구 생계

지원금은 기존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또 재산기준에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고, 최대 6900만원을 공제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하며, 1인 기준 194만원을 공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

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하반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 완화 등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국비 8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류미수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과 지원기준 완화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남도의 멋·매력 보여줄 공예품 찾았다

전남도 공예품대전 대상 '궁중문 다용도 보석함' 등 25점 선정

전남도가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출품작 선정을 위한 전남도 공예품대전에서 보릿대를 활용한 '궁중문 다용도 보석함'을 비롯해 남도의 멋과 매력을 대표하는 우수 공예품을 선정했다.

담양 담주 다미담예술구에서 지난 28일 열린 이번 공예품 대전에는 도자 11점, 목칠 4점, 섬유 2점, 종이 5점, 금속 3점, 기타 18점 등 총 43점이 출품됐다. 심사는 품질, 상품성, 디자인,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게 이뤄졌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은 기타 분야 박소정(해남) 작가의 '궁중문 다용도 보석함'이, 금상은 김육남(해남) 작가의 '물길 따라 온 여행'이 차

지하는 등 총 25점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궁중문 다용도 보석함'은 보릿대를 오브제로 사용한 액세서리 보관 다용도함이다. 보릿대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바탕색을 검정으로 표현하고 보릿대를 빨간색으로 염색했다. '물길 따라 온 여행'은 그림·서예 도구로 부귀를 상징하는 잉어와 금붕어를 주제로 해남 특산품인 연옥 분연의 천연색을 활용했다. 입상작은 7월 3일까지 담양 담주 다미담예술구에 전시하고, 8월 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 출품, 전남의 우수 공예 수준을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공공배달앱 출시 1주년 기념 감사이벤트

광주시는 "광주공공배달앱(위메프) 출시 1주년을 맞아 7월 한 달간 시민들의 '착한소비'에 대한 감사이벤트를 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광주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난해 7월1일 출시한 배달서비스로, 1년 동안 가맹점 7400여 곳, 122억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하는 등 지역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일부터 8일까지 '광주공공배달 릴레이 6행시

짓기'를, 11일부터 22일까지는 '위메프 소문내기'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공공배달 릴레이 6행시'는 광주공공배달앱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한 후 게시물 댓글을 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면 응모가 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배달앱 이용권 1만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

